

SL338

관박쥐(*Rhinolophus ferrumequinum*)로부터 분리한 한타바이러스의
생화학적 및 면역혈청학적 성상

박철휘*, 조규봉, 이연태
단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

박쥐가 한타바이러스의 숙주동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한타바이러스(76-118)에 대한 혈청항체를 간접형광항체법에 의해 검출을 시도하였으며,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생물학적 및 혈청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.

한국에 서식하는 박쥐들의 한타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양성율은 3.40%(677마리중 23마리)이었으며,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박쥐는 관박쥐(*Rhinolophus ferrumequinum*)와 문둥이박쥐(*Eptesicus serotinus*)이었으며, 항체의 지역적 분포와 월별 분포는 보다 많은 개체를 통하여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 같다.

관박쥐(*R. ferrumequinum*)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생물학적, 혈청학적 특성을 규명하여 기존의 혈청형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한타바이러스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으며, RT-PCR을 이용하여 genome의 M분절에서 특정부위를 증폭시킨 product는 한타바이러스 76-118과 유사한 크기를 지녔다.

이상의 결과로부터 한국에서 서식하는 박쥐는 자연계에서 한타바이러스의 숙주로 작용하고 관박쥐(*R. ferrumequinum*)로부터 분리한 한타바이러스는 원형(76-118)의 한타바이러스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.